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독재가 아니다

소비에트에 모든 권력을

프롤레타리아의 Dictatorship은 맞는데, 그 당시 Dictatorship의 의미가 지금 우리가 아는 Dictatorship의 의미와 다름
그때 Dictatorship의 의미는 '지배'에 가깝다 - 오늘날 부르주아의 지배를 대신한 프롤레타리아의 지배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독재에서 박정희나 스탈린, 히틀러 식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연상하지 말라는 거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대개 완전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 과도기로 이해된다
노동자가 혁명을 통해 국가를 인수하고, 바로 철폐하는 대신(아나키즘과의 차이: 그들은 바로 철폐한다) 스스로 국가를 관리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부르주아 계급과 계급의식을 소멸시킨다
(레닌의 도식 상에서는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가져가는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일한만큼 받는 사회주의' 단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수준에만 머무르고 공산주의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평이 많음
그런데 더 정확히는, 프롤레타리아 대신 관료들의 지배가 실현되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는게 내 생각

한편 알튀세를 비롯한 68당시 서구권 마오주의자는 중국의 문혁에 대해서, 최초 혁명을 통해 정치/경제 심급에서 혁명을 완수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기에 있던 사회주의 국가가, 소련처럼 관료화에 빠질 위기를 대중의 자발적인 문화 심급에서 혁명을 통해, 공산
주의로 이행하는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프랑스 공산당이 코민테른 지령 받아 활동하면서 빨기하는 등 탓에, 당시 소련은 강 관료화의 늪에 빠진, 알튀세르 식으로는 '사회
주의 국가의 자본주의로의 후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비판받음)